

# 벤투호 축구, 내일 코스타리카 평가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8명 합류  
11일 수원서 강호 칠레 상대

새롭게 출항한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통해 첫 선을 보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2위의 북중미 강호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른다.

2018 러시아월드컵이 끝나고 새롭게 출범한 벤투 감독 체제에서 갖는 첫 번째 실전이다.

한국은 러시아월드컵에서 FIFA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1승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스웨덴, 멕시코전에서 드러난 경기력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수선했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갖는 A매치라는 점과 벤투 감독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

또 장기적인 큰 틀에서 벤투 감독의 운영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벤투 감독은 "덜리 내다봐야 한다. 당장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월드컵 예선을 무난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이번에 최대한 해볼 것이다. 짧은 시간 준비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해 분위기가 좋다.



지난 4일 경기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소집훈련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코치진과 대화 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 평가전을 치른다.

4일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조현우(대구), 황의조(감바 오사카), 이승우(베로나), 황인범(아산), 김민재(전북), 김문환(부산), 황희찬(함부르크) 등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8명이 합류하면서 완전체가 됐다.

이날 훈련에서 선수들은 스트레칭과 장애물을 활용한 달리기 등으로 몸을 풀었다. 이후에는 필드 플레이어를 9명씩 두 팀으로 나눠 패스 훈련을 했다.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으로 공격 진영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국한 후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했지만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기쁨이 대표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벤투 감독의 시선은 사로잡은 황인범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다"면서 "1분 이든, 2분이든 A매치에 데뷔하는 것이 목

표다. 기회가 왔을 때 가진 것을 다 보여 주면 언젠간 어시스트도 하고 골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들은 5일 오후 경기도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한 차례 더 호흡을 맞추고 6일 경기가 열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몸을 풀 계획이다.

벤투호는 7일 코스타리카를 상대하고 장소를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11일 남미의 강호 칠레를 상대한다. /뉴시스

## 2022년 아시안게임부터 KBO 정규리그 중단 안한다

한국야구위, 대표 선발 방식에 변화 주기로

2022년 아시안게임부터 KBO리그가 중단되지 않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5일 회원사들과 신속하게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깊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협의를 거쳐 향후 한국 야구의 수준과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KBO는 2022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부터 아시안게임에 한해 KBO리그 정규시즌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KBO는 "국가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함께 선발 기준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해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가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그러나 대표팀 선발 과정부터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야구 팬들은 기량보다 병역 특례를 고려해 일부 선수들을 발탁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26일 아시안게임 조별예선 1차전에서 자국 프로야구도 아닌 실업팀 선수들로 구성된 대만에 1-2로 패배하면서 팬들의 비판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우여곡절 끝에 결승까지 진출해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팬들의 비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KBO는 대표 선발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정규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프로 무대 1군 선수 일색인 대표팀 구성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뉴시스

## 허재 남재 농구대표팀 감독 자진 사퇴

김상식 코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감독 대행으로

허재 남재 농구대표팀 감독(사진)이 자진 사퇴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5일 "허재 감독이 사의를 표명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허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두 아들 허웅(상무), 허훈(KT)을 선발해 논란을 불렀다.

협회는 "김상식 코치가 13일, 17일에 열리는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감독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손흥민 "벤투 감독님 데뷔전 승리하고파"

"한국 축구대표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게 보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를 이룬 손흥민(토트넘)이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의 데뷔전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5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앞두고 "감독님께서 카리스마와 열정이 있는 멋진 분인 것 같다. 내가 스피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감독님이 원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당장 1~2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기대가 크다"

고 말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손흥민은 전날 벤투 감독과 처음 인사를 나눴고 첫 훈련을 소화했다. 7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

손흥민은 "감독님의 첫 경기고, 오랜만에 열리는 A매치다. 감독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데뷔전이기에 때문에 꼭 승리해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벤투 감독과의 첫 훈련에 대해선 "독



일과 영국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했지만 감독님의 섬세한 프로그램에 인상이 깊었다"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감명이 깊었다"고 전했다.

"정말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였다. (벤투 감독의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훈련장에서 하는 건 경기장에서 무조건 나온다. 훈련할 때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수 용했다.

러시아월드컵을 마친 대표팀은 코스타리카에 이어 11일 칠레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